

생활 · 공업용수 가뭄 연말까지 지속

정부는 농업용수 가뭄이 대부분 해소됐지만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10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68%)은 평년(72%)의 94% 수준으로 가뭄 심화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울산, 경북, 경남지역 3개 시·군이 주의단계로 올해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의 경우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량(58.0%)은 예년(59.9%)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은 적

전국 다목적댐 평균저수량 예년과 비슷

남부지방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은 적어

은 상황이다.

10월 현재 저수량이 낮은 운문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대구, 충남, 전남, 경북지역 17개 시군은 심화단계이며 주압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11월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돼 남부지방의 가뭄 해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전남·경북지역 9개 시군은

가뭄 심화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고 광주, 충남, 전남, 경북지역 19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12월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지만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시군은 심화단계에 도달하거나 유지되고 광주, 충남, 전남 16개 시군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년도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강수량이 많았던 최근 3개월(7~9월)은 평년의 85% 수준이고 올해말 기상가뭄은 완화되었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북·경남지역중 5개 시군의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전남, 경남 등 저수량이 낮은 지역의 경우 내년 영농기 불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양수저류를 실시하고 운문댐 등 용수댐에 대해서도 저수량 관리 등 장기 가뭄에 대비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달 지하 거대 동굴...탐사기지 활용 가능성

달 지하에 거대한 동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달 탐사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NHK 및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달 지하에 깊이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18일 밝혔다. JAXA는 지난 2007년 발사한 달 탐사 위성 '카구야'가 약 1년 반에 걸쳐 달 내부를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동굴은 과거 다수의 화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달 표면의 '마리우스 언덕'이라는 지역에 위치한다.

달에서는 약 10억년 전까지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 지하 동굴도 과거 화산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화산활동으로 용암이 흘러나오면 표면은 식으면서 굳지만 내부는 뜨거운 체 계속 흐른다. 이밖에 발견된 동굴은 용암의 통로가 된 '용암 튜브'로 보인다.

이 동굴은 달 표면의 직경 50m 정도의 구멍을 따라 50m가량 지하로 내려가면 서쪽 방향으로 가로로 뻗어있는 모양이다. 동굴의 위아래 폭은 약 100m이며 길이는 50km 정도다. 동굴 내부가 붕괴되지 않아 암석 등에 열음과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JAXA는 향후 이 동굴을 달 탐사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달에는 대기가 희박해 우주에서 날아온 강력한 방사선과 운석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0도에 달하는 등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다.

그러나 향후 달 탐사 시 이 동굴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주 방사선이나 극심한 온도차 등 척박한 달 표면의 환경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동굴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열음과 물을 연료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佛 정치인 테러 계획 극우 단체원 10명 체포

프랑스에서 17일(현지시간) 좌파 진영 지도자 장클로드 멜랑송과 다른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테러 공격 계획을 세운 극우 단체 회원 10명이 체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체포된 극우 단체 '악시옹 프랑세즈 프롤레타르'의 조직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17~25세 사이 남녀 10명이 이날 경찰에 잡혀졌다.

이들은 올해 대선에서 좌파 진영 후보로 나온 멜랑송과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정부 대변인 등 정치인들과 이민자, 이슬람 사원을 표적으로 테러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 '악시옹 프랑세즈 프롤레타르'의 조직원 로간 알렉산드르 니신(21)을 체포한 바 있다. 니신은 온라인상에 이민자와 무슬림, 흑인을 위협하는 게시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니신은 무기를 구입해 총격 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실제로 계획을 이행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새로 체포된 이들은 테러범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모의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카탈루냐서 독립 운동가 구속 규탄 촛불집회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17일(현지시간) 카탈루냐(州) 주민투표에 위한 판결을 내렸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스페인 정부의 독립 지지 운동가 구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란 구호를 외치며, 16일 마드리드 지방법원이 시민단체 카탈루냐 국민의회(ANC)의 조호르디 산체스와 카탈루냐 분리 독립 시민단체 유니온의 조르디 키사르트를 구속한 데 대해 비난했다.

산체스를 지지하는 한 참가자는 "중앙정부 정부의 탄압에 시민들은 평화적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에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지배하는 국가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며 "정부에 국가의 자살행위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파열 카탈라 법무 장관은 17일 성명에서 "산체스와 키사르트는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법원명령에 따라 당국은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앞서 같은 날 "카탈루냐 주민투표 법은 국가의 주권과 스페인 국민의 불가분 통일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이 법을 승인한 의회의 회기 역시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정 후 카탈루냐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법부를 이용해 입법부를 차단하는 정부의 권력에 맞서겠다"라며 "카탈루냐는 (정부의) 독립 지지 노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대학교수 범법행위 61건 적발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교수들이 음주운전과 급품수수 횡령 폭행 등 각종 범법행위로 징계받은 건수가 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 교수 범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에서 총 61건이 적발됐다.

대학별로 전남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천대 12건, 목포대 10건, 목포해양대 4건이다.

전남대에서는 음주운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교수 대부분이 견책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중 한 명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돼 징계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교수 2명은 각각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급품을 수수한 교수 1명은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3600만원을, 또 다른 교수 1명은 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연구비로 구입할 수 없는 가습기와 방난방 겸용 에어컨을 구입한 교수 2명은 견책 처분,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 1명은 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목포대 교수 4명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가로채 모두 해임됐다.

순천대 교수 4명은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돼 견책, 감봉 1개월, 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정성들여 그림 그려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놀이요, 그려요, 써봐요 : 글밭에 그림바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센터 개장식 테이프 커팅 자리 배치 뒷말

지난 17일 나주에서 열린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개장식 주요인사 자리배치를 놓고 전남도청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 산포면에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개장식이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와 김병원 농업중앙회장, 강인규 나주시장, 전남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별 무리 없이 끝났지만, 개장식 테이프 커팅 과정에서 주요 인사들의 자리 배치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행사의 성격상 김병원 농업중앙회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의전상 주민 자리에 위치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김 중앙회장 옆에 이명규 도의회 의장이 자리를

잡아 뒷말이 나왔다.

자칫 이 의장이 전남도를 대표하는 인사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주최측의 실수인지, 누가 양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리로 간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청 안팎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더욱이 전남도가 권한대행체제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어제 개장식 광경의 사진을 보고 전남도를 대표하는 인사가 도의회 의장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유가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